



주연 **박상영**    조연 **제자 임레**    감독 **조종형**

금메달 확률 100분의 1... 대역전 드라마

# 소름 검객

2016.8.10 대개봉    전체 관람가

★★★★★  
모두가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은 단 한사람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의 집념에.. 언빌리버블 리우 극장!!  
전세계 팬들을 매료시킨 한국 펜싱의 막내

투자·후원: 부모님·추신수·초록우산어린이재단·현희·정순조 부부지도자

칼이 날아다니는 액션에 손을 꼭 쥐고 보는 긴장감, 극적인 역전승에 터지는 눈물과 긴 울림...

10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남자 펜싱 에페 개인 결승전은 한편의 영화나 다름없었다. 이른바 '흙수저의 금빛 찌르기'다. '블록버스터'급이 아닌에도,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면서 잠 못드는 새벽, 5000만 국민을 환호하게 했다.

주인공인 '겉 없는 청년' 박상영(21·한국체대)이 천하 제일검의 꿈을 이루는 게 메인 스토리다.

박상영은 중학교(진주제일중) 2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우연히 '칼'을 잡았다가 '천하제일검'으로 성장하는 청년이다. 실력과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긍정적 사고로 꿈을 잃지 않고 두박두박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검객'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집안의 반대까지 장 먼저 등장한다. '검객'으로서의 삶이 쉬운 길이 아닌데다, 여유롭게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점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는 극심했다.

하지만 '겉 없는 청년'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었다. 부모님 몰래 밤 늦도록 학교에서 칼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졌다.

어머니 최명선 씨는 온 몸이 맘에 쏙 들어오는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몰래 학교를 찾았다가 희미한 불빛 아래 맘을 뻗뻗 흘리며 훈련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때부터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펜싱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게 됐다"며 든든한 열혈 팬이 됐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 보호구, 펜싱복 등 비싼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데도 선뜻 사주지 못했고 먹고 싶은 것, 비싼 음식 한 번 마음껏 못 사줘 가슴 아픈 날도 많았다. 그래서 매일 전국 사찰을 다니며 기도를 올렸다. 전국 이름난 사찰마다 찾아다녔고 108배를 매일 올렸다. 수도를 툰 것처럼 맘이

쏟아지고 온몸이 아팠지만 아들 생각에 멈추지 않았다. 절을 찾을 때마다 어머니 최씨는 '펜싱 선수 박상영 리우올림픽 파이팅'이라는 기도 내용을 기약장에 적어 올렸다.

주인공은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무럭무럭 성장했다. 경남체고에 진학해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검객'에 이름을 올리더니 한국체대에 진학하고는 '조선제일검'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영은 그러나 만족하지 않았다. 세계 검객들과의 한 판 승부를 다짐하며 연습에 열중, 결국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게 됐다.

힘들게 얻은 출전권이 첫 올림픽이지만 거침없었다. 32강전부터 러시아의 파벨 수코브를 15대 11로 꺾고 기세를 올렸다. 16강전에서는 이탈리아의 엔리코 가로조를 15대 12로 물리쳤고 8강전에서는 스위스의 맥스 하인저를 15대 4로 여유 있게 제압했다. 급기야 4강전 상대인 스위스의 벤저민 스테펜을 15대 9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영화의 백미는 '천하제일검'을 겨루는 3분짜리 결승전. 상대는 세계에서 3번째로 빠른 검객, 산전수전을 겪은 백전노장 헝가리의 제자 임레다. 박상영은 마지막 3세트까지 9대 13으로 뒤지다 3세트에 들어서도 10대 14까지 밀렸다.



박상영 선수와 어머니 최명선씨.

2분 24초를 남기고 시작되는 막판 역전극은 "소름돋는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주인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철 심장'으로 '기적 같은 5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5000만 관객들은 '다시보기'를 누르며 TV 앞으로 다가섰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바하 카리오카 경기장 3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 개인 에페 결승 경기에서 한국 박상영이 제자 임레를 꺾으며 금메달을 획득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